

제 72 회 SGRA 포럼
제 8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20 세기의 전쟁·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 교육·미디어·연구」

일 시: 2023 년 8 월 8 일(화요일) ~ 9 일(수요일) (예정) (도착일 8 월 7 일(월)/ 출발일 10 일(목))

장 소: 와세다대 사회학부(14 호관 8 층) 및 온라인(Zoom 웨비나)

주 최: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가능성 실행위원회

공동주최: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SGRA),

와세다대 첨단사회과학연구소·동아시아국제관계연구소

조 성 금 : 다카하시산업경제연구재단

■개최 경위

본 ‘국사들의 대화’ 기획은, 자국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각국 연구자들 간의 대화 및 교류를 목적으로 2016 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7 회 개최됐다. 국경을 넘어 수많은 참가자가 모여, 각국 국사(國史)의 현상학과 과제, 개별적인 실증연구를 둘러싼 논의와 교류를 이어왔다. 2021 년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속에서도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온라인 개최를 세 차례 시도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금번은 3 년만의 대면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직접 오실 수 없는 분은 온라인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코로나 유행 이전과 동일하게 한중일 3 편씩, 총 9 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금번에도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중국어, 일본어⇄중국어 동시통역을 마련한다. 포럼 종료 뒤에는 강연록(SGRA 레포트)을 발간하고, 참가자 에세이 등을 메일 매거진 등으로 사회에 널리 발신할 예정이다.

■개최 취지

2016 년부터 시작된 ‘국사들의 대화’ 목적은, 한중일 ‘국사(國史)’ 연구자의 교류를 심화함으로써 지(知)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3 국 간에 가로 놓여 있는 역사인식문제 극복에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역사문제의 기원은, 20 세기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인식 차이에 있다고 지적되곤 한다. 그러나 그간 진행된 한일, 중일 역사공동연구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 개별적 역사 사실의 해석을 둘러싼 차이는 있으나, 20 세기 동아시아 역사의 큰 틀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종종 역사문제로 갈등을 빚는 이유의 하나로, 상대방의 ‘역사인식’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전후 동아시아는 냉전, 화해, 일본 주도의 경제협력, 중국의 대두 등 수차례 복잡한 변화를 경험했다. 각국은 각자의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국사의 문맥에 기반한 역사관을 형성하고, 국민에게 보급해 왔다. 전후 각국의 역사관은 대체로 폐쇄적인 역사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온 것이다. 각국의 역사인식 형성과정, 내재하는 논리, 정치와의 관계, 국민 속에 확산되는 프로세스 등에 대한 정보는, 동아시아 역사가에게 공유되어 있지 않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은, 이와 같은 정보의 결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20세기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국민의 역사인식은, 국가의 역사관, 가정교육, 학교 교육, 역사가의 연구와 사회적 발신, 미디어, 문화·예술 등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어온 것이다. 역사가의 연구가 국가의 역사관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금번 대화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역사가가 전후 어떻게 역사를 연구해왔는가’이다. 전후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격렬한 정치 변동이 발생했고, 역사가의 역사연구와 역사인식도 격렬한 동요를 경험했다. 역사가의 연구와 사회적 발신의 궤적을 되짚어 가는 것은, 각국 역사인식의 형성과정을 확인하는 유효한 수단일 것이다.

영화·TV 등 미디어도 국민의 역사인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전후 각국은 각자의 역사관에 서서, 전쟁과 식민지에 관계된 작품을 다수 창작해왔다. 이 같은 작품이 국민의 역사인식에 준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미디어 교류가 진행되는 속에서, 다수의 영화와 TV 드라마가 공동으로 제작되었다. 국민 서로가 이러한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역사 대화를 해왔다. 각국의 문화, 사회 환경이 역사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던 것일까? 이 역시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 중 하나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국가 간 대립이 발생하면, 상대방 역사해석과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자국 내에서 발생한 정치, 사회 변동에 유발된 역사인식의 대립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 상대방의 역사인식을 인식하는 과정은, 자신의 역사인식을 되묻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제 8 회 국사 대화는, 지금까지의 대화를 더욱 심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프로그램

2023년 8월 7일 (월요일)				
환영만찬(18:00~20:00)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제 1 세션(9:00~10:40): 개회 사회: 무라 가즈아키				
개회사	류지에	LIU Jie	와세다대	
취지설명	미타니 히로시	MITANI Hiroshi	도쿄대 명예교수	
자기소개	강연자 및 지정토론자			
휴식(10:40~11:00)				
제 2 세션(11:00~12:40) 부주제: 교육 사회: 남 기정				
한국	김태웅	KIM Taewoong	서울대	해방 후 한국인 식자층의 탈식민 담론과 역사서사 구성의 변화
중국	탕샤오빙	TANG Xiaobing	화동사범대학	역사 기억 전쟁과 역사 글쓰기 윤리—20세기 중반 중국의 역사전쟁

일본	시오데 히로유키	SHIODE Hiroyuki	교토대	일본의 역사교육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전해왔는가: 교과서와 교육 현장에서 생각하다
코멘트				
중식(12:40~14:00)				
제 3 세션(14:00~15:40) 부주제: 미디어 사회: 리 언민				
중국	장페이	JIANG Pei	난카이대	자기 보호, 애국 및 굴종: 위만 (偽滿, '만주국') '협력자'의 심리 탐색
일본	후쿠마 요시아키	FUKUMA Yoshiaki	리쓰메이칸대	전후 일본의 미디어 문화와 '전쟁 이야기'의 변용
한국	이기훈	LEE Kihoon	연세대	현대 한국 미디어의 식민지, 전쟁 경험 형상화와 그 영향 - 영화, 드라마를 중심으로
코멘트				
휴식(15:40~16:00)				
제 4 세션(16:00~17:40) 부주제: 연구 사회: 송 지용				
일본	야스오카 켄이치	YASUOKA, Kenichi	오사카대	'나'의 역사, '우리들'의 역사: 이로카와 다이키치의 '자기역사(自分史)'론을 단서로
한국	양지혜	YANG Jihye	동북아역사재단	발전' 너머, 새로운 역사쓰기의 가능성: 한국의 식민지기 경제사 연구의 향방
중국	천홍민	CHEN Hongmin	저장대	중화민국기 중국인은 "일본 군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코멘트				
교류회(18:00~20:00)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제 5 세션(9:00~10:40) · 제 6 세션(11:00~12:50): 전체토의(지정토론) 사회: 평하오, 정순일				
	미타니 히로시	MITANI Hiroshi	도쿄대 명예교수	논의를 시작하며
지정토론자(알파벳 순) 히라야마 노보루 HIRAYAMA Noboru (가나가와대, 일본) 김호 KIM Ho (서울대, 한국) 김현주 KIM Hunjoo (국립한밭대, 한국) 시보공 SHI Bogong (중국미디어대, 중국) 요시이 후미 YOSHII Fumi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일본) 위안칭펑 YUAN Qingfeng (중국미디어대, 중국) 장샤오강 ZHANG Xiaogang (장춘사범대, 중국)				
폐회사	조광	CHO Kwang	고려대 명예교수	
	이마니시 준코	IMANISHI Junko	아쓰미국제교류재단	8 회 국사 대화를 돌아보며 향후에 대해

■ 「국사들의 대화」 프로젝트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2015년 7월, 제 49회 SGRA(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포럼을 개최해 '동아시아의 공공재' 및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우선 동아시아에 '지(知)의 공유공간' 혹은 '지(知)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로부터 화해로 이어지는 지혜를 창출해 동아시아에 제공하자는 의의를 확인했다.

이 플랫폼에 '국사들의 대화' 코너를 설치한 것은 2016년 9월의 아시아 미래회의를 기회로 개최된 제 1회 '국사들의 대화'였다. 지금까지 3개국 연구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각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대화는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인식 하에, 우선 동아시아의 역사대화를 가능케 할 조건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미타니 히로시 교수(도쿄대 명예교수), 거자오광 교수(푸단대 교수), 조광 교수(고려대 명예교수)의 강연을 통해, 3국의 다양한 '국사'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했다.

제 2회 대화에서는 자국의 역사와 국제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몽골침략과 13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라는 테마를 설정했다. 2017년 8월, 한국·일본·중국·몽골 등에서 11명의 국사 연구자가 기타큐슈에 모여, 각국 국사의 시점에서 연구를 발표한 후, 동아시아 역사라는 시점에서 조공책봉의 문제, 몽골사와 중국사의 문제, 사료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의 모든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할 때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개개의 나라와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제 3회 대화는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주제로 설정했다. 2018년 8월, 9명의 한중일 국사 연구자가 서울에 모여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주의 홍타이지의 조선침공 및 그 배경에 있는 은 무역을 주축으로 한 긴밀한 경제관계, 전란 후 안정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세 차례의 국사 대화를 되돌아보며 다음 단계로 계승하기 위해, 와세다대가 주관하는 '화해를 향한 역사가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검증'이라는 패널 토론을 개최했다.

제 4회 대화에서는 "동아시아의 탄생: 19세기 국제질서의 전환"이라는 테마로 2020년 1월 필리핀 마닐라시 근교에서 한중일 국사 연구자들이 모여 각국의 '서양에 대한 인식',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 발표하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 5회 대화는 '19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을 테마로 하여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2021년 1월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19세기에 감염병 문제를 각국이 어떻게 인식했고, 또 어떻게 대응책을 준비했는지를 검토하고 각국의 상호협력과 그 한계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논문 발표와 함께 지난 4회의 회의 참여자가 패널리스트로 다수 참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염병 유행으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한 했지만, 결과적으로 Zoom 웨비나라는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전개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었다.

제 6회 대화는 아시아 근현대의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을 주제로 제 5회에 이어 온라인(3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시오데 히로유키 교수(교토대)는 문제제기에서 근현대 사람의 이동을 좌우해온 국경에 초점을 맞춰, 사람의 이동이 국가주권체제 및 국제정치구조(제국주의와 냉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후의 세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유토론을 주제로 하여 하루를

소비한 다소 실험적인 구성이었지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제 7 회 대화는, 2022 년 8 월 “역사대중화’와 동아시아 역사학’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한성민 연구교수(고려대)가 평소 한국 역사학자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 ‘역사대중화’ 문제를 제기해,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 역사학의 현상황을 분석하고 해결방법의 하나로 ‘공공역사’를 제안했다. 그 뒤, 각국의 다른 상황을 바탕으로 ‘역사의 대중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포럼, 세션의 대화뿐만 아니라, 3 개 국어에 대응한 레포트 배부와 메일 매거진의 릴레이 에세이 등을 통해 원탁회의 참가자의 네트워크화의 도모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6 년에 걸친 경험의 축적으로, 340 명 이상의 한중일 국사 연구자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있다.

■국사들의 대화 레포트 지난호

제 1 회 국사대화 레포트 「한국·일본·중국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http://www.aisf.or.jp/sgra/korean/2017/08/07/sgra-report-no-79/>

제 2 회 국사대화 레포트 「몽골침략과 13 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

<http://www.aisf.or.jp/sgra/korean/2018/05/10/sgra-report-no-82/>

제 3 회 국사대화 레포트 「17 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전란에서 안정으로」

<http://www.aisf.or.jp/sgra/korean/2019/12/19/sgra-report-no-86/>

제 4 회 국사대화 레포트 「‘동아시아’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http://www.aisf.or.jp/sgra/korean/2021/01/29/sgra_report_no_90/

제 5 회 국사대화 레포트 「19 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

<https://www.aisf.or.jp/sgra/korean/2021/12/13/sgra-report-no-94/>

제 6 회 국사대화 레포트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

<https://www.aisf.or.jp/sgra/korean/2022/09/09/sgra-report-no-96/>

제 7 회 국사대화 레포트 「‘역사 대중화’와 동아시아의 역사학」

<https://www.aisf.or.jp/sgra/korean/2023/06/15/sgra-report-no-102/>

■메일매거진 지난호

<https://kokushinewsletter.tumblr.com/>